‘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내달 15일까지 즐긴다

市, 운영기간 연장…8개 시군 21곳 대상

여행경비 50% 1인당 최대 10만원 환급

JG TOUR서 내달 18일까지 정산 신청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세계섬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섬 관광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

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섬 반값여행 기간을 연장해 초겨울까지 관광객의 섬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은 전남광주지역 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사업 대상 섬을 찾아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섬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해 숙박·음식·쇼핑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높아진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을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대상 지역은 목포·여수·고흥·보성·강진·영광·진도·신안 등 8개 시·군의 21개 섬이다.

전남광주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손죽도와 초도, 안도, 연도, 여자도 등 여수지역 5개 섬을 추가하면서 관광객의 선택 폭도 넓혔다. 각 섬이 지닌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지역별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통합 관광플랫폼 ‘JG TOUR’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뒤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아 섬 여행을 하면 된다. 여행을 마친 뒤 정산을 신청하면 환급액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섬 여행을 인증할 경우 해당 섬이 속한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섬 안에서 발생한 소비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숙박과 음식, 쇼핑 등으로 소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행 가능 기간은 12월15일까지이며 정산 신청은 같은 달 18일까지 해야 한다. 전남광주시는 관광객들이 연장된 기간과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온라인 관광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미경 관광정책과장은 “반값여행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아름다운 섬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섬마다 지닌 자연경관과 문화, 먹거리를 즐기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지역 혁신기업 4곳 ‘CES 2027 혁신상’ 쾌거

뉴작·에코피스·리셀·아이메디텍

AI·친환경·의료분야 기술력 인정

市, 내년 美 CES서 공동관 운영

전남광주 혁신기업 4개사가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7’을 앞두고 발표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CES 2027 혁신상 심사에서 전남광주시가 지원한 21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CES 혁신상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앞서 CTA가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이 뛰어난 신규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세계시장에서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혁신상으로 꼽힌다.

㈜뉴작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를 실시간 생성·제공하는 자율형 공간지능 플랫폼 ‘스페이스온(SPACEON)’으로 AI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뉴작은 CES 2025 ‘엑스러너(X-Runner)’, CES 2026 ‘스포트랙(SporTrack)’에 이어 3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에코피스㈜는 AI 기반 자율주행형 부유식 담수화 로봇 ‘에코봇 데살로(ECO-BOT Desalo)’로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스로 수면 위를 이동하며 오염된 수자원이나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로봇으로, 2025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리셀은 롤투롤 양산 방식을 적용한 맞춤형 차세대 태양전지 ‘솔웨어(SOLWEAR)’로 같은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얇고 휘어지는 필름형태로 건물 외벽과 농장,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광 솔루션이다.

㈜아이메디텍은 상처 부위에 직접 방사해 2분 이내 맞춤형 나노섬유 막을 형성하는 휴대용 창상피복재 ‘나노아이(Nano-i)’로 인간안보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빠른 지혈과 감염 예방, 조직 재생을 돕는 기술로 응급 상황과 의료시설 부족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전남광주시는 CES 혁신상 수상을 위해 컨설팅과 출품비 지원, 글로벌 마케팅, 비즈매칭, 해외진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에 공동관을 운영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바이어 발굴과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자원봉사자 체육한마당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에서 열린 자원봉사자 소통과 화합의 체육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캠프지기 등 회원들이 단체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22일부터 12월13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후 2-4시 광산구 마한유적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총 4회 진행된다.

22일 ‘우리동네 설화 알아보기-신화편’을 시작으로 29일 김덕령·견훤 등 지역 인물의 전설을 다루는 ‘전설편’, 12월6일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민담편’이 이어진다. 마지막인 13일에는 강강술래의 유래를 배우고 직접 체험한다. 참여 신청은 전남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 “2027년산 쌀보리 적정 생산”

전북과 재배의향 조사…수급 안정 추진

계약재배 권장·밀 등 전략작물 전환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쌀보리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7년산 맥류 적정 생산’에 본격 나선다.

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맥류 재배면적의 약 85%를 차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쌀보리 계약재배 확대와 밀·동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7년산 맥류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 과잉재배 영향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아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맥류 재배면적 증가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한 데다 미국산·캐나다산 맥류와 맥아의 수입 관세 인하·철폐에 따른 저가 수입 물량 증가 가능성도 국내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광주시와 전북도는 시·군·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판로가 확보된 물량에 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쌀보리를 재배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판로가 없는 비계약 재배는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쌀보리 재배 예정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대상인 밀이나 동계조사료로 작목 전환을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진 식량산업과장은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을 줄이기 위해 농가의 자율적인 적정생산 참여가 중요하다”며 “계약재배와 전략작물 전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 수출상’ 후보 기업 13일까지 공모

대상 등 7곳 선정 시장 표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6년 전남광주 수출상’ 후보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을 격려하고 수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전남광주시는 대상 1개사, 우수상 2개사, 장려상 4개사 등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전남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한 해외 수입기업에도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1년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구·군 또는 수출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남광주시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수출e음’(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 기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